강진 특산품 밀키트 3종 추가 출시

황칠추어탕·예촌추어탕 귀리 강된장&돼지불고기 3년째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강진군이 3년째 지역 대표 음식을 밀키트로 선보이며 '맛의 도시 강진'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23년 회춘탕과 연탄돼지불고기를 시작으로, 2024년 짱뚱어탕 2종, 추어탕, 장어볶음에 이어 올해에는 추어탕 2종과 강진 귀리 강된장&돼지불고기를 출시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메뉴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밀키트는 황칠추어탕, 예촌추어탕, 강진 귀리 강된장&돼지불고기로 총 3종이다.

황칠추어탕은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식당 다산에서 100% 국내산 활미꾸라지에 직접 텃밭에서 재배한 무청과 우거지, 자연식재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넣어 맛이 진하다. 깊은맛이 일품인 제품으로 용량은 3~4인분(1500g, 500g×3개)가격은 3만원에 판매된다.

예촌추어탕은 성전면에 있는 지역맛집 예촌에서 100% 국내산 활미꾸라지에 엄선된 식재료로

강진 특산품 밀키트 홍보안.

전통방식 그대로의 된장과 생강을 넣고 고기육수와 배합해 맛이 진하고 고소한맛이 일품인 제품으로 용량은 3~4인분(1500g, 500g×3개) 가격은 3만원이다.

강진 귀리 강된장&돼지불고기는 병영면에 있는 라라잇 레스토랑에서 고소하면서 쫀득한 식감의 찐 통귀리를 넣어 짜지않고 구수한 맛을 살린 강된장과 다양한 과일과 채소로 양념해 단짠 밸런스가 일품인 돼지불고기, 쌈으로 즐길 수 있는 양배추로 구성된 제품이다. 무방부제, 저당으로 만들어 다이어터도 안심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며 용량은 1~2인분(1140g) 가격은 1만9900원에 판매된다.

신규로 출시되는 밀키트는 15일부터 초록믿음강진(https://greengj.com/)을 통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신규 출시제품에는 강진의 특산물인 귀리를 활용한 제품도 있어, 단순히 기존의 향토음식을 밀키트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상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밀키트를 통해 강진의 맛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강진군을 방문하고 싶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실제 식도락 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밀키트 개발을 통해 강진의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맛의 도시 강진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찾아가는 경계설명회 지적재조사 주민 신뢰 높인다

17~19일 성천지구 내 462필지

함평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성천지구(엄다면 성천리 384-2번지 일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계설명회'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인 것을 목표로 한다.

경계설명회는 성천지구 내 와촌 마을경로당과 성암 마을경로당에서 실시되며, 군청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협의 대상은 성천지구 내 462필지, 토지소유자는 현재 187명이다.

군은 설명회에서 드론 정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정사영상을 활용해 경계 현황을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 간 경계 갈등 해소는 물론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군은 올해 국비 약 2억원을 지원받아 엄다면 성천지구와 학교면 곡창지구 및 석정지구 등 총 3개지구 972필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개최했으며, 지난 5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8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현장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진행했다.

군은 또 23일부터 25일까지 학교면 곡창지구와 석정지구를 대상으로 각 마을경로당에서 경계설명회를 3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이 정형화되고 맹지가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계설명회에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 용산·안양면 10개 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안전 교육

장흥군이 가을철 농번기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용산면과 안양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수리에서는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농업기계 위주로 예초기와 동력살분무기 등의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를 진행했다. 〈사진〉

순회 수리 현장에서는 자가 수리 요령 안내 및 농업기계 안전 취급 교육까지 함께 진행됐다.

서비스 기간 동안 110여대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가 완료됐으며, 주로 연료 공급계통의 기화기 정비 및 교환, 점화플러그 교환, 연료호스 교환 등 소모품 교환이 이뤄졌다.

고령 농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농업기계를 점검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의 교통사고 예방 총력 대응에 맞춰 농업인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박계현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순회수리와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내달 2일까지 추가 모집

나주시가 지역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다음달 2일까지 추가 확대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업소를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이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법인사업자'와 포장·배달 전문업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준비 서류를 갖춰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업소 선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격 수준, 위생 상태, 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시는 내달 최종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정된 업소에는 표찰 설치,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 시 차원의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에서 나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총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라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 26일부터 사흘간 고서포도축제

증암천 생태공원서 다양한 행사

담양 증암천 생태공원에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푸른빛 포도로 여는 고서의 전설'을 슬로건으로 제13회 고서포도축제가 열린다.

고서포도축제추진위원회 주최, 고서면 기관단체 후원으로 고서포도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샤인머스켓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도 품종별 전시와 상설 판매, 포도상자 빨리 접기 대회 등이 열리고, 26일 개막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7·28일엔 노래자랑 예선과 본선, 초청가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향토 음식관, 노래자랑대회, 추억의 오락실, 야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공간도 마련됐고,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포도를 판매하고, 주차장 배달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올해는 샤인머스켓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서 포도의 새 매력을 전하고자 했다"라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고서포도 축제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청년CEO 창농스쿨' 교육생 모집

24일까지 10명…온라인 실무교육

화순군이 지역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해 '청년 CEO 창농스쿨'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화순군에 거주하는 (예비)청년 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기본 공식의 이해와 농산물 판매를 위한 맞춤형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숏폼 동영상 콘텐츠와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 등 실무 산출물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여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061-379-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경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